

I 국제 산업보건 동향

〈유럽산업안전보건청 2011년 9월 발표자료〉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 최신 경향 연구 결과 발표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제19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 최신 경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9년 기준으로 유럽 27개국의 노동인구 중 58.6%는 여성이며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59%는 여성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로서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현재 여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직종(소매업, 서비스업)에서의 재해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여성 근로자 신체에 맞지 않는 개인보호구(PPE)의 착용으로 인해 재해 위험이 높다.

- 동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고용에 대한 전반적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산업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성 근로자의 특징, 근로환경, 위험 노출, 재해, 건강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사노동자, 재해여성근로자의 일터 복귀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근로자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연구, 직업병 및 재해 예방 등 새로운 논의 주제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유럽 전반에 걸친 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 경향을 파악하고자 추진되었다.

■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

- 여성의 고용 증가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고용 증가분의 대다수는 임시직 및 계약직이었으며, 금융위기로 인해 젊은 여성 근로자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는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특히 최근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교육, 보건, 소매업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동시에 남성중심적인 업종도 증가하고 있다.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룬 직종은 비숙련직 및 전문직뿐이었다. 따라서 근로감독정책 및 산업안전보건전략 수립, 자원할당 등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비정형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직업의 경우 고용보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국제 산업보건 동향

여성근로자는 교육수준보다는 나이와 출신에 따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는데, 예를 들어 젊은 여성 근로자는 소매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나이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보건이나 교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시에 가사일 또는 육아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직 또는 임시직 형태의 직장을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성별, 연령, 인종, 배경 등의 이유로 차별에 더욱 취약하며, 이주 여성근로자의 경우 차별이 더욱 심한 상황이다.

여성 근로자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으로는 전도 및 추락재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여성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업무가 남성의 업무보다 신체 및 정신적으로 강도가 덜하다는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 결과이다. 여성이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는 폭력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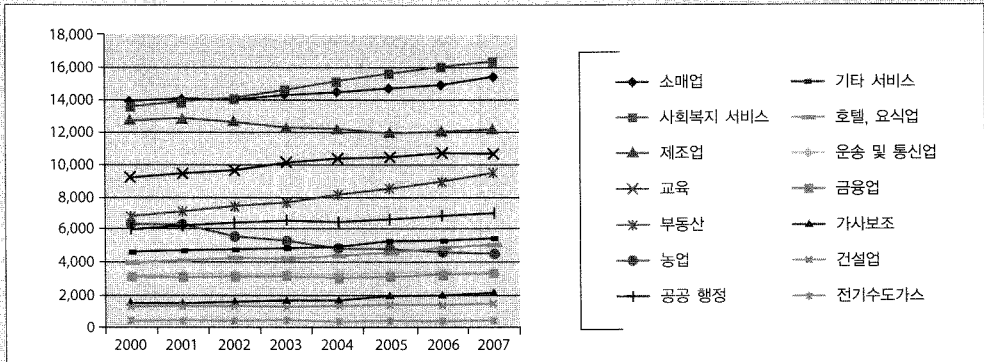
-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근무시간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 특히 요식업계 근로자의 경우 절반의 근로자만이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었으며 29.9%의 근로자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17%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관리자급의 여성 근로자가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성 그 비율은 낮으며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성이 담당하는 업무의 상당수가 승진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작업 중심인 점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은 스트레스, 안전보건 위험성, 근골격계 질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여성이 종사하는 주요 업종(2000-2007년)

- 분야별 여성 근로자 수 (단위:1,000명, 만 15세 이상)



■ 여성근로자에 초점을 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및 연구

-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EU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여성의 산업안전보건 향상의 선진사례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2012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 현재 진행중인 주요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유럽(NEXT) : 유럽 10개국 여성 간호사에게 발생하는 폭력 및 조기퇴직 문제
-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근로감독정책에서의 성별문제,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
- ▶ 핀란드 : 암을 이겨낸 여성근로자를 위한 핀란드 산업보건 연구원(FIOH)의 프로그램 / 사업장에서의 평등 및 문화다양성
- ▶ 영국 : 여성 및 남성이 특히 취약한 분야에 대한 탐구 / 교대근무와 유방암 및 여러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안전보건 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확대 등(영국 HSE 실시)

〈출처〉 <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reports/new-risks-trends-osh-women/view>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재해예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발표

산업안전보건은 고용과 사회보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1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는 여러 사회보장기구에서 예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및 연구결과는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체제의 건전성을 유지시켜준다고 밝히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 전략에서 예방의 역할

- 산업안전보건에서 예방조치의 중요성은 널리 강조되어 왔으며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를 통해 안전보건 예방문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위한 기업차원의 예방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보장협회 재해예방특별위원회의 12개 분과에서는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해예방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및 기관이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 사회보장체제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 재해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재해감소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직률 및 병가 일수를 줄여 생산성과 경영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산재보험료도 낮추는 등 부수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다.

- 반면 근로자의 건강문제, 특히 업무상/비업무상 위험요인으로 인한 만성질환은 기존의 예방조치를 뛰어넘는 예방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위기 등의 원인으로 사회보장체제의 재원이 제한적일 경우 예방활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www.issa.int/Resources/Social-Policy-Highlight/Prevention-is-good-for-health-and-good-for-business>

■ 예방의 경제적 효과(Return on Prevention: RoP) 연구

- 예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독일재해보험조합(DGUV), 독일 BGETEM(에너지, 섬유, 전자, 출판분야 BG)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동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이 과연 기업경영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 정성적 및 정량적 계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의 미시경제적 효과를 도출해냈으며,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 ▶ 사업장 예방의 미시경제적 효과는 표준화 면접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사업장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면접 대상이었다.
- 연구 참여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체코, 독일, 홍콩,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베트남 등 15개국이었다.

■ 예방의 경제적 효과(Return on Prevention: PoP)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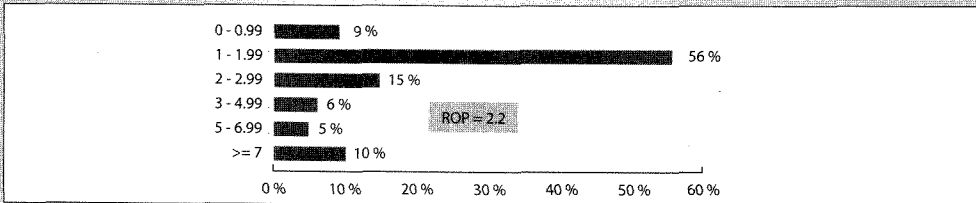
- 기업 활동 영역별 산업안전보건의 영향(1 = 영향 없음, 6 = 매우 높은 영향)

구매	4.35	운송	4.92
생산계획	4.60	연구개발	3.76
인력배분	4.72	마케팅	3.67
생산	5.24	평균	4.52

-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영향 (1 = 영향 없음, 6 = 매우 높은 영향)

위험 감소	5.08	업무 일정 준수	4.01
규제위반 감소	5.04	업무 혁신의 수 증가	4.19
재해 감소	4.98	고객 만족도 상승	4.15
업무차질 감소	4.30	기업이미지 제고	4.80
업무중단시간 감소	4.35	기업문화 개선	4.75
제품 품질 향상	3.99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5.05
		평균	4.41

| 국제 산업보건 동향



- 예방의 경제적 효과

▶ 평균 : 2.2

(기업에서 근로자 한 명당 1유로의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 2.2유로의 잠재적 경제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예방으로 인한 혜택의 유형

- ▶ 업무차질 방지 : 19%
- ▶ 업무차질로 인한 물질적 시간적 낭비 방지 : 14%
- ▶ 근로자 사기 및 만족도 향상 : 21%
- ▶ 제품 품질 유지 및 향상 : 15%
- ▶ 제품 혁신 : 9%
- ▶ 기업 이미지 향상 : 21%

〈출처〉 <http://www.issa.int/News-Events/News2/Investment-in-safety-and-health-is-key-contribution-to-economic-performance-ISSA-study-confirms>